

“LA 한인회, 제 4 차 COVID-19 구호기금 실시”

수신 : 편집(보도)국장

참조 : LA 한인회 담당기자

발신 : LA 한인회 사무국

제목 : 제 4 차 코로나 19 구호기금 신청 접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A 한인회는 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신 한인들을 돕기 위한 제 4 차 코로나 19 구호기금을 신청서를 10 월 12 일부터 접수합니다.

3. 4 차 구호기금은 지난 9 월 고대동문회에서 1 만불의 기금을 전달해 주셨고, 이어 조앤 김 CBB 회장님 개인이 1 만불을, 그리고 지난 10 월 9 일(금) CBB 은행에서 2 만 5,000 달러를 기부해주셨습니다. CBB 은행에서는 COVID-19 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자 이번기금을 마련하였고, LA 한인회에서 지난 1.2.3 차의 구호기금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도운 일을 검토하여 이번에 LA 한인회를 통해 동포들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었다고 하시며 참여하셨습니다.

4. 이번 4 차 구호기금의 지원대상은 렌트비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청당시 1 개월 이상 렌트비를 내지 못한 한인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인당 구호기금 액수는 500 달러입니다.

지난 7 월 LA 시&LA 카운티 렌트비지원 프로그램에 수많은 한인들의 신청을 도와 드렸을 당시나, 그리고 현재에도 한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렌트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제 4 차에서 지원되는 1 인당 500 달러는 렌트비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아닌 집주인에서 직접 지불되는 형식으로 집주인 앞으로 체크를 발행해 집주인과 한인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LA 한인회 4차 코로나 19 구호기금 신청서 접수

- 1) 지원대상: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1개월이상 렌트를 내지 못하신 LA 카운티 거주 한인. 체류신분 불문.
- 2) 신청기간: 10월 12일(월)- 10월 24일(토)까지
- 3) 제 4차 구호기금 총액: 4만 5,000 달러
- 4) 1인당 구호기금: 1인당 500달러씩 90명에게, 집주인 앞으로 500달러 렌트비 납부 체크 발행.
- 5) 신청서류: 1개월 이상 렌트비 미납 사실을 보여주는 관련 서류>(*별첨신청서 참고)
- 6) 대상자 선정방법: 1차 신청서와 관련서류 검토, 2차 신청자 및 집주인 전화 인터뷰를 거쳐 90명을 선정합니다.

□ 3차에 걸쳐 총 39만 3,000달러 구호기금 지원

LA 한인회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인 가정을 돕기 위한 구호기금 지원사업을 3차에 걸쳐 실시해 총 39만 3,000달러를 한인 동포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LA 한인회는 서류미비 신분으로 인해 정부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한인들을 돕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그간 구호기금 지원을 받은 한인 동포들 중에는 저소득 한인 가정, 유학생, 서류미비 동포, 극빈층 노인 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구호기금: 20만 2,500달러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1차 구호기금은 Adriano Goldschmied(구우울 대표)와 대한제국 이석 황손 및 앤드류 리 황세손 가족이 각각 10만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00달러를 기부해 주신 인경 세일님 등의 기부금을 합쳐 20만 2,500달러의 기금을 모아 한인 405명에게 구호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신청자는 2,073명이었습니다.

-2차 구호기금: 12만 8,000달러

2차 구호기금은 한국 잠실교회를 비롯한 7개 한국교회(5만달러)와 LA 나성영락교회(5만달러), 안병찬 CPA(5,000달러), 벤추라 열린문 장로교회(1만 5,000달러), 토렌스은혜로교회(5,000달러), 롤링힐스 홍종대님(1,000달러), 로드아일랜드 티버튼 거주 김영호님(1,000달러) 등의 기부금으로 구성된 12만 8,000달러입니다. 2차 구호기금에서는 폭력시위 사태로 피해를 당한 52개 한인업소, 152개 한인 저소득가정 등에게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피해 업소들에는 한 업소당 1,000달러씩, 저소득 가정에는 500달러씩을 지원했습니다.

-3 차 구호기금:6 만 2,500 달러

3 차에서는 오픈뱅크의 기부금 5 만달러, 갤러리아마켓 1 만 2,500 달러를 합쳐 6 만 2,500 달러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오픈뱅크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가장 먼저 한인 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한인은행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5 만달러는 코로나 19 사태로 직원들이 받은 휴가보상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기부해주신 것입니다.

또, 갤러리아 마켓은 LA 한인회의 구호기금 지원 소식을 듣고 어렵고 힘든 때에 작지만 어려운 동포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는 말씀과 함께 1 만 2,500 달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

LA 한인회는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3 월부터 LA 시와 카운티, 주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든 한인 동포들이 각종 정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서 무료 대행 서비스를 6 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한인회 이사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한인 신청자들을 직접 대면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도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정부관계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LA 한인회에서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을 무료 대행한 프로그램은 SBA EIDL, LISC, JFLA, EDD UI & PUA, LA 시 렌트지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한인 동포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선뜻 구호기금을 기부해 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과 한인 단체, 교회, 한인 기업들에게 도움을 받으신 한인 동포들을 대신해 LA 한인회가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